‘AI가 최적경로 운행’…현대차,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승객 원하는 출발 · 목적지 맞춰 최적 경로 운행

신개념 모빌리티 솔루션…오늘부터 은평뉴타운서 시범 운영

AI(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유사한 경로의 승객을 함께 태우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 이동시켜주는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다.

현대자동차는 택시운송가맹사업자 KST모빌리티(이하 KSTM)와 함께 14일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에서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Shucle)의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셔클은 이용자가 반경 약 2㎞의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차량을 호출하면, 쏠라티 11인승 개조차가 실시간 생성되는 최적 경로를 따라 운행하며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수요응답형 서비스다.

신규 호출이 발생하면 합승 알고리즘을 통해 유사한 경로의 승객을 함께 탑승하도록 실시간으로 경로를 재구성하고 배차가 이뤄진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으로는 택시 합승 서비스가 금지돼 있지만, 지난 11월 현대차와 KSTM의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되면서 셔클의 시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셔클은 여러 지역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이동수단인 ‘셔틀’(Shuttle)과 지역, 모임 등을 의미하는 ‘서클’(Circle)’의 합성어로, 누구나 커뮤니티 내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동할수 있는 모빌리티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쏠라티 6대로 시작하는 시범 서비스는 은평뉴타운 주민 100명을 선정해 3개월 간 무료로 운영된다.

선정된 주민 1명 당 3명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최대 400명의 주민이 시범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차량 1대에는 최대 10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으며 유아, 반려동물 탑승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에서 현대차는 기술개발과 함께 전반적인 서비스 정책 및 기획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현대차 AI 전문 조직 에어랩은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 기술을 개발했다. 실시간 발생하는 최적의 차량이 배차되며, 호출 후에는 앱으로 실시간 차량의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정 좌석제를 도입해 승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차량 내부 좌석 간 간격을 넓히고 별도의 짐 수납 공간을 두어 쾌적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대차와 KSTM은 시범 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고도화해 하반기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 사업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셔클 서비스로 불필요한 단거리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향후에는 주차난 해소에도 일정 부문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혈액수급 비상 소식에…헌혈버스에 줄 선 해경 · 인천시 직원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인천소재 각급 기관들의 헌혈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소재한 해양경찰청. 이날 오전 10시에 도착한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의무경찰부터 간부들까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기 위해 버스를 찾은 해경청 소속 직원들이다.

해경은 오후 1시 현재 40여명이 헌혈을 마쳤으며 오후 4시까지 총 80여명이 헌혈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헌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단체헌혈 취소가 잇따르면서 혈액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실시됐다.

해경은 본청 외 전국 지방청 및 소속기관에도 헌혈을 독려할 방침이다. 앞선 지난 10일에는 인천시 공무원 100여명도 헌혈에 참여했다.

인천시는 매년 분기별 4회 헌혈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이어 한 달만에 또 헌혈을 했음에도 헌혈 인원은 평소 30여명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인천시 공무원들 역시 혈액부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향후 미추홀타워, 경제자유구역청, 소방본부 등 인천시 산하 기관 직원들도 헌혈할 예정이다.

헌혈은 채혈자, 헌혈자 모두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철저한 방역을 마친 후 실시됐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설 연휴와 동계방학으로 인한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는 시기와 맞물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헌혈 희망자가 급감했다. 이로 인해 혈액 보유량은 적정 수준인 ‘5일분’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 공검지, ‘1400년 전 인공저수지’ 규명

우리나라 최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상주 ‘공검지’(공갈못)가 1400년 전 인공 저수지로 축조됐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됐다.

13일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대 6000년부터 쌓인 상주 공검지 퇴적층 내 화석 돌말류를 분석해 자연습지였던 이곳이 1400년 전 인공 저수지로 축조됐다는 사실을 생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공검지는 지난 2011년 6월 우리나라 논습지 가운데 최초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한때 김제 벽골제, 제천 의림지와 더불어 삼한시대 3대 저수지로 교과서에 등재된 바 있으며, 조선초기에 작성된 ‘고려사’에도 1195년 공검이라는 큰 못에 축대를 쌓아 저수지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1959년 서남쪽에 오태저수지가 완공되자 이곳은 모두 논으로 만들어졌으며, 당시 많은 부분이 훼손됐다. 연꽃이 만발하는 광경으로 얻은 명성도 이때부터 잃게 됐다.

이후 1993년 흔적만 있던 옛터를 일부 복원했고, 2009년 복원공사에선 1400년 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 옛 수문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형성 시기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현재는 역사교과서에서 사라진 상태다.

이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공검지 생성시기에 관한 생물학적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공검지 일대 2곳에서 땅을 파내고 퇴적층을 분석했다.

그 결과, 6000년 전 쌓인 퇴적층 5~6m 깊이에서 화석 돌말류가 발견됐다. 이는 공검지가 1400년 이전 무렵 인공 저수지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자연적으로 생긴 습지였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인공 저수지로 만들어진 뒤에는 4단계 수위변화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연구진은 약 1.5~2m 깊이인 150여년 전 퇴적층에서 각종 돌말류가 최대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이 시기에 최대 수위를 보였다가 이후 육상화를 시작했다고 추정했다.

퇴적층에서 미기록 화석 돌말류 32종이 발견되기도 했다. 가장 오래된 종은 피눌라리아 엑시도비온타(Pinnularia acidobionta)로, 2003년 일본 도쿄 우소리호에서 처음 발견됐다. 공검지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살았던 돌말류로 추정된다.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상주 공검지의 옛 규모를 정확히 밝히기 위한 후속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벽골제, 수산제, 의림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대 저수지로 연구를 확대해 국가습지보호지역 보전 연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재난문자 운용규정 개정

울산시가 긴급재난문자를 시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을 개정해 13일 공포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비상 상황 이외의 재난 발생 시 송출 판단 회의를 신설해 송출 적절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DMB방송 송출에 따른 방송사업자 추가와 문구 · 자구 수정, 휴대폰 송출 문안 정비, DMB방송 송출 문안 등을 신설했다.

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 개정에 따라 새로 제작된 송출문안은 울산시 재난문자방송 송출 문안 자문회의와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공공언어 감수를 거쳐 2G폰을 사용하는 노인들도 재난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형으로 만들어졌다.

또 자연재난을 풍수해, 기상, 산사태, 지진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으며 풍수해에는 태풍, 호우, 강풍 등 비슷한 유형으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문안 수는 유형별 총 59건과 상황별 120건으로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자연재난은 유형 27건과 상황 52건으로 풍수해(유형 19, 상황 35), 기상(유형 6, 상황 10), 산사태(유형 1, 상황 4), 지진(유형 1, 상황 3)으로 분류했다.

사회재난은 유형별 28건과 상황별 64건, 민방공사태는 유형별 4건과 상황별 4건으로 분류해 기존보다 민방공 유형이 4건이 증가됐으며 상황은 중복 문안을 정비해 23건이 감소했다.

“의료진 한마디가 버팀목”…퇴원 3번 · 17번 환자 감사의 손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고양 명지병원에서 치료 받은 뒤 지난 12일 퇴원한 3번 환자(54)와 17번 환자(37)가 의료진에게 감사 편지를 각각 남겼다.

3번 환자는 “안녕하세요. 3번 확진자입니다. 저는 글솜씨가 너무 없어서 죄송스럽지만 감사의 마음을 글로 남겨봅니다”면서 A4지 2장 분량의 편지를 의료진에게 보냈다.

그는 “간호사 여러분들은 감명과 감동을 뼈속까지 느끼게 해주었다”면서 “진료할 때마다 웃을 입고 벗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매일 우선적으로 나를 치료해주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여기서 버티게 한 버팀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병을 숨기고 돌아다닌 사람으로 오해받아 억울하다. 간호사 앞에서 펑펑 운 적도 있다. 한일관에서 만난 친구와 그의 부인, 아들도 상처받을까 걱정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퇴원한 17번 환자도 명지병원 의료진에게 편지를 남겼다.

17번 환자는 “확정 판정을 받고 불안한 마음으로 도착한 명지병원에서 받은 첫 인상과 마지막 인상은 모두 ‘매우 따뜻하다’였다”면서 “병원에 도착한 앰뷸런스에서 내리자 마자 방호복을 입은 김문정 교수가 직접 마중 오셔서 ‘많이 놀라셨죠? 치료 받으시면 금방 괜찮아질 거에요’라는 따뜻한 말을 건넸다”고 밝혔다.

이어 “강유민 교수는 내 상태를 매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고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줬다. 병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화상전화로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각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이름을 한명씩 나열하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17번 환자는 “입원기간 동안 기억에 남을만한 이벤트는 병원 내 음악동호회에서 직접 환자들을 위해서 병동을 방문해주고 격려의 노래와 연주를 해준 것”이라며 “비록 화상전화를 통해 연주회에 참석했지만 좁은 병실에 격리됐던 내게는 정말 큰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뉴스1

학위수여식 취소 충북도립대에 졸업생 포토존 ‘눈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학위수여식을 취소한 충북도립대학교에 졸업생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설치돼 눈길을 끈다.

충북도립대는 애초 13일 옥천관 성회관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위수여식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상향 조정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학의 큰 행사 등을 연기 또는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학위수여식을 취소했다.

그동안 정들었던 대학을 떠나는 졸업생 입장에서는 마지막 추억을 남길 수 없는 아쉬운 상황이 된 것이다.

충북도립대는 졸업생의 이같은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해 졸업 상장과 우수학생 상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학교를 찾아오는 졸업생에게는 학사복과 학사모를 대여해 주기로 했다.

교내에는 졸업기념 포토존을 학교 본관 내부와 입구 등에 설치해 학교를 찾아온 졸업생들이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1일까지 운영한다.

교직원이 기념사진을 촬영해주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수칙(손 씻기, 마스크 착용) 준수 홍보와 함께 학과 사무실 입구에 손 소독제도 비치했다. 마스크도 배부한다.

기보-인제대, ‘TECH밸리보증’ 체결

기술보증기금과 인제대학교는 지난 12일 경남 김해시 인제대학교에서 ‘대학 기술사업화 지원 플랫폼(U-TECH밸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인제대는 대학 내 우수 창업기업을 기보에 추천한다. 기보는 추천받은 기업에 보증 · 투자 등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컨설팅 △기술이전 △IPO지원 등 비금융까지 복합 지원해 우수 전문 인력의 성공 창업을 지원한다.

특히 인제대는 경남지역의 의생명 · 의료기기 핵심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분야에서의 우수기술 창업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ECH밸리보증’은 대학 · 연구소가 개발한 우수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도입된 특화 보증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의 주요 추진과제로도 선정된 바 있다.

‘TECH밸리보증’은 교수, 연구원 등 우수인재가 창업에 도전하고 뛰어들 수 있도록 최대 30억원까지 보증한도를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정윤모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수기술을 보유한 대학 교수, 연구원 등이 창업 및 기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뉴스1